



광주교통공사, '스마트 역사관리' 체험

광주교통공사가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도시철도 안전관리 솔루션 체험 프로그램을 펼쳐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

13일 광주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와 엘지유플러스는 이날부터 사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디지털트윈 통합관제 솔루션' 체험 부스를 열고, 디지털 트윈과 지능형 영상분석 등을 통한 도시철도 통합관제 사례를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이번 체험에서는 광주도시철도 역사를 '디지털 트윈' (현실 세계를 3차원 디지털로 똑같이 구현하는 첨단 기법) 기술로 구현한 통합관제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공사는 이번 솔루션 제작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빅데이터와 IoT를 활용한 스마트 역사 관리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체육회, 시민 정신건강 증진 협약

광주시체육회(회장 전갑수)는 광주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유승형)와 함께 13일 광주시체육회 중회의실에서 시민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우선 광주시체육회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척도 검사 등을 시행하고 향후 검사를 선수, 지도자, 동호회원들로 확대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체육 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연계해 시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체육회는 시민의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정신건강 인식 개선 활동과 자살 예방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진도지역자활센터 2024년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진도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호)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4 전국 지역자활센터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

보건복지부는 수급자의 자활촉진 및 지역자활센터의 역량 향상을 위해 수행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중간 점검을 위한 경영평가(간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50개의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참여자 증감률, 자산형성 지원사업 지원, 수익금 매출액 증가폭 등 6개 지표로 실시했으며, 진도 지역자활센터는 각 지표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김호 진도지역자활센터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민·관의 지속가능한 협업을 통해 지역자활센터가 지역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진도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지역자활센터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가운영비를 지원받아 종사자 사기진작, 저소득층 자활근로자의 자활근로사업장의 안전장비설치 및 자활사업단 운영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유료도시락, 농ungs 등 5개 자활근로사업단과 3개의 자활기업을 운영해 50여명의 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진도지역자활센터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정서적·경제적 자활을 지원해 소득가정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진도=백재현 기자



전남도, 중국 쓰촨성서 우호교류 기념행사

전남도는 13일 중국 쓰촨성 청두시 선취리 시티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쓰촨성과의 우호 교류 2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두 지역의 지난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기념행사에는 명창한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쓰촨성 고위급 관계자, 현지 유관기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

행사는 두 지역 간 우호교류 성과 공유 및 미래 발전 모색을 위한 고위급 회담, 홍보영상 상영, 전통 예술단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또 한식 체험 프로그램으로 김밥 만들기 체험과 전복 음료, 조미 돌김 등을 선보였으며,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부대행사로 한복 체험과 전남도의 홍보사진 및 특산품 전시회가 열려 쓰촨성 시민들에게 전남의 매력을 알렸다.

이와 함께 쓰촨성 시민들에게 전남의 문화,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청두시 CJ CGV에서 전라남도관을 개관, 오는 2025년 2월 중순까지 3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전남인재개발원, 치유·쉼 교육과정 운영

전남도인재개발원은 13일 '치유'와 '쉼'을 주제로 우수 교육 콘텐츠를 운영하는 해남산이정원, 장흥통합의료병원, 진도현대미술관 등과 공직자에게 다채로운 현장 전문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상호 협력협약을 진행했다. (사진)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 따라 개발원은 현장 교육 종합 기획과 기관 간 역할 조정에 나섰다.

이를 통해 해남산이정원은 자연 속 힐링 활동 등 생태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체험형 교육을, 장흥통합의료병원은 현대 의학과 전통 의학을 접목한 예방적 건강 관리 전문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도현대미술관은 지역 예술과 문화를 접목한 전시 콘텐츠로 창의성·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윤연하 전남도인재개발원장은 "각 기관의 특화된 분야를 결합해 도민과 공직자에게 몸과 마음 치유에 대한 깊이 있는 현장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해 전남도의 현장 교육 환경을 한층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국민연금 광주본부, 순천대 대상 '기업탐방'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13일 국립 순천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 사업'의 지원을 받은 순천대학교의 요청에 따라 계획됐으며, 공공기관 현직자와의 만남을 통해 취업 노하우를 전수하고 국민연금공단 광주본부 각 층을 견학하며 고객 상담 현장을 체험했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는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함께하는 디지털 플랫폼정부'라는 슬로건으로 13일부터 15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나다운 기자



광주대 유아교육과, 38년 전통 '동심제' 성료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지난 12일 학교 호심관 1층 대강당에서 재학생과 광주대 위탁어린이집 영유아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8회 '동심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올해로 38년 전통을 자랑하는 유아교육과 '동심제'에서는 핸드벨 악기 연주, 춘천인형극제 입상 인형극, 졸업생 특강, 부스 체험 등으로 영유아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학문과 문화, 예술을 접목한 창의적인 전공 역량을 기반으로 참석자들에게 색다른 문화적 경험을 선물하고 지역사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이장우, 막걸리·안주 개발... 지역 재생프로젝트

배우 이장우의 지역 재생프로젝트 '시골마을 이장우(사진)'가 다양한 콘텐츠 공개와 함께 이벤트를 개최한다.

13일 MBC TV '시골마을 이장우' 측은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주민들은 "'장우가 이사 온대?'라며 반겼다.

함께 공개된 포스터에서 이장우는 1년 간 직접 일군 논밭을 배경으로 마치 날아오르듯 높이 뛰어오르며 경쾌한 시골살이를 예고했다. 이장우가 사계절을 지낸 빨간 지붕 집도 함께 포착됐다. 더불어 '시골마을 이장우'는 이장우가 1년 간 직접 개발에 참여한 막걸리와 안주를 맛볼 수 있는 양조장 개업식에 시청자들을 초대했다.

'시골마을 이장우'는 이장우가 전북 김제 시골마을에서 이웃들과 함께 사계절을 보내며 지역 폐양조장 일대를 핫플레이스로 재탄생시키는 프로그램



이다. 이과정에서 이장우는 1년 간 직접 막걸리와 안주 개발에 나섰다. 마을새내기가 된 이장우는

주특기인떡방은 물론, 농사, 노래, 춤 솜씨까지 선보이며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러블리 막동이'로 거듭난다.

첫 방송을 기념해 '시골마을 이장우' 공식 홈페이지에서 시청자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막걸리 메뉴를 추천해주는 이벤트다.

'시골마을 이장우'는 오는 27일 오후 9시 첫 방송된다. 뉴스

하하, 16년만에 DJ로... 오후 2시 '슈퍼라디오'

오마이걸 효정 '볼륨을 높여요'

래퍼 하하(사진)와 그룹 '오마이걸' 효정이 KBS 라디오 DJ로 인사한다.

하하는 25일부터 KBS 쿨FM '하하의 슈퍼라디오'를 통해 매일 오후 2시 청취자들과 만난다. '뮤직쇼' 후속이며, 하하는 2005년 SBS '텐텐클럽' 이후 16년 만의 라디오 복귀다.

슈퍼라디오는 유쾌하고 활기찬 오후의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다. 세대를 아우르며 케미스트리를 보여주고, 오후의 나른함을 깨우는 음악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SBS TV '런닝맨' 멤버들이 지원 사격한다. 개그맨 지식선과 양세찬, 배우 지예은 등이 방송 첫 주 게스트



로 출연한다.

하하는 프로그램 시그널과 로고송 제작에도 참여했다. "오랜만에 라디오로 복귀해 설렘이 크다. 하하만의 파이팅과 슈퍼 긍정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효정은 오후 8시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를 맡는다. 가수 정하후임이다. 볼륨을 높여요는 1995년 시작한 KBS 대표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MC 이분, 가수 메이비, 배우 최강희, 유인나, 강하나 등이 거쳐갔다. 효정은 음악 전문성과 예능적 재미를 뽐낼 예정이다. 뉴스